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9차 세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 요한복음 6장과 10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요한 복음, 요한복음 6장과 10장입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6장에서 구원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에 대한 파노라마를 살펴보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 파노라마에서 여섯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언어와는 다르지만, 가르침이나 주제가 겹칩니다. 아버지는 37절과 39절에서 사람들을 아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요한이 택하심에 대한 세 가지 그림이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주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선거의 저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16과 19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선거의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선행 또는 이전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원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즉, 믿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성령에게만 알려진 인간들이 있다. 그들은

선행적 또는 선형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6장에서, 누가 그를 믿을지, 누가 그를 믿지 않을지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요한복음 17장의 위대한 제사장 기도에서 사람들을 아들 에게 주십니다.

이 주제는 네 번 등장하며, 아버지로부터 아들 에게로의 이 사람들의 주심, 이 신성한 선택은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듯이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장에서 아들의 사역을 결정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하고,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아들에게 위탁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더 끌어당기십니다(요한복음 6장 44절). 그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올 때, 3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은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절의 평행성은 분명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것과 평행합니다.

따라서 44절에서,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됩니다. 요한의 이끄심은 바울의 부르심과 비슷합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 에게 주시고, 그는 그들을 택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끍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아들에게 불러서 그를 믿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믿고, 와서, 아들을 믿습니다. 37절, 40절, 44절, 45절, 47절, 65절과 비교해보세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다. 이 파노라마의 네 번째 요점입니다. 파노라마라면 네 번째 관점, 네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40절과 4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고, 아들은 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존의 교리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그들의 구원을 자기에게로 인도하신 때부터 죽음에서 일으키실 때까지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3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일으키기를 원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보세요: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40절, 그를 믿는 자마다 지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파노라마는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37, 39절.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끁니다. 그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부릅니다.

아들 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37, 40, 44, 45, 47절을 다시 65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40, 47절은 54, 58절과 비교하라.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37, 39절.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39, 40, 44절은 54절과 비교하라.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시 하겠지만, 이번에는 구절을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파노라마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는 그들을 구원을 위해 택하십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로 이끌고 , 효과적으로 그들을 아들에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옵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넷째,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그린 주요 그림 중 하나는 이 복음서에서 영생을 베푸는 자 또는 주는 자로서입니다. 아들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요점은 네 번째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삼위일체적 인격들 사이에는 노동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잠깐만요, 삼위일체적 인격이 아니에요. 삼위일체적 인격이 두 명이예요, 세 명이 아니예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은 언급되지 않았고, 그것은 요한이 오순절과 그 이후에 성령에 관해 가르치는 습관과 일치합니다.

오, 성령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의 구절과 함께 나타나며, 요한복음의 처음 12장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의 삶 속에 나타나지만, 주로 성령은 오순절에 오셔서 그때 자신의 일을 하신 것으로 예수에 의해 예언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에는 아버지 와 아들이 계시지만, 삼위일체적 인격들 사이에는 분업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시고 , 그들을 그에게로 이끄시며, 그들은 와서 영생을 얻고, 아들은 그들을 지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둘째, 삼위일체론, 또는 적어도 이원론 이 있으며 , 체계신학은 그것을 신격의 인격들 사이의 삼위일체적 조화로 만들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조화가 있으며, 체계신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신약성서의 모든 말씀, 특히 바울의 말씀을 고려할 때, 삼위일체의 인격들 사이에 조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3-14에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강조해서 봅니다.

우리는 또한 베드로전서 1:1과 2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신학적 결론. 삼위일체적 인격들 사이에는 노동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둘째, 조화롭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정체성 주제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에게로 이끌고, 아들에게 오는 자, 그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자, 아들이 간직하는 자, 아들이 마지막 날에 살리는 자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갑니다.

39절에서 하는 일은 정확히 그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 우리의 체계적인 외삽법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노동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조화가 있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아버지가 택한 자에게 아들은 영생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날에 아들에 의해 영생을 위해 부활하게 됩니다. 오, 그들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요한이 영생에 대해 그린 주요 그림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의 현재 소유이지만, 여기서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의 종말론은 실현되도록 올바르게 가르쳐졌지만, 미래적 종말론도 있고, 우리는 39, 40, 44, 54 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에서 그것을 봅니다.

예수는 생명의 빵입니다. 이 이미지는 그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그 빵을 먹는 것은 그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36~47절의 틀 안에서, 예수는 이미 읽은 48~51절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을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만나의 성취입니다. 만나는 그를 예표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생명의 빵입니다.

요한의 의미에서 참은 거짓과 대조되는 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나는 진정한 생명의 빵이었지만 요한의 의미에서 참은 성취된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포도나무는 아니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청지기 직분에 실패했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 주님은 열매를 찾으셨고 썩은 열매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이며, 성경에 나오는 그 그림의 궁극적인 성취이며, 궁극적인 이스라엘이며, 그의 백성의 삶에서 실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참된 만나입니다. 구약의 마나는 단지 그리스도의 한 유형입니다.

유형은 구약의 역사적 인물, 사건 또는 제도이며, 구약의 구속 역사에서 기능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가리키는 더 큰 종말론적 기능을 가진 역사적 인물, 행동 및 전체 제도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아담은 로마서 5장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유형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바친 살렘의 신비로운 왕-제사장 멜기세덱은 유형이며, 그의 역사적 인물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왕-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유형은 사람과 사건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각각 율법과 선지자가 의인화된 것입니다.

그리스어 '탈출'을 여백에 적어 넣었을 것입니다 .

그것은 공부용 성경이라고 말하며, 따라서 구약성경의 위대한 구원 사건인 이집트 탈출이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성취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적 선구적 유형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유형은 사람, 사건, 제도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를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그가 하는 말은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말하듯이, 위대하고 마지막 선지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하는 구약성경의 모든 선지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지막 선지자, 신약성경의 선지자가 있지 않나요? 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동안의 확장된 사역입니다.

그들은 신약의 선지자와 사도들이며 히브리서 1:1, 2에 따라 그분을 섬깁니다. 모든 신약의 계시는 SON 하이픈 계시, 아들의 계시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계급은 그리스도의 유형이지만, 주님은 멜기세덱의 제사장 계급과 다른 제사장 계급을 계획하고 확립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에서 언급된 세 번째 제도는 선지자, 제사장직, 왕권의 왕적 직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족적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메시아는 한 번에 두 지파에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다윗의 아들로써 유다에서 나왔고, 그는 마리아로부터 혈통을 받았고, 그의 계부인 요셉에게서 공식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론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론과 유다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는 유다에서 나왔고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통해 또 다른 제사장직을 일으키셨습니다. 매우 독특한 것으로, 멜기세덱과 예수라는 두 명의 구성원만 있습니다. 어쨌든 유형은 예수, 역사적 인물, 사건,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든 제도, 역사 속의 실제 사물, 역사적이었던 실제 인물과 사건, 제도에 대한 구약의 예표이며, 궁극적 으로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구원, 심지어 그의

교회를 넘어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만나, 정말 기적적인, 뭐였을까요, 음식, 일종의 달콤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탱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은 하늘에서 온 가장 위대한 만나, 생명의 빵,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자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하여 '먹다'와 '먹이다'라는 용어가 이 구절을 지배하며, 49~58절에 8번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한에 대한 주석을 쓴 DA 카슨이 이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용하는 것은 앞 구절에서처럼 그를 먹는 것, 그의 살을 먹는 것, 그를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그의 살을 바칩니다. 살아있는 빵을 먹는 것은 그의 속죄의 죽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의 살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식인 풍습처럼 들립니다.

이에 대해 예수는 그의 메시지를 부드럽게 하지 않고, 율법이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더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53~58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잔인합니까? 아니요, 그는 자비롭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대로, 사도행전 6장 6절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초기 교회의 사도들의 사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거둡거둡 맞서고 토요일에 치유하고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의 현실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지도자들을 화나게 할 용기와 확신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에게 자장가를 불렀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잤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심벌즈를 두드립니다. 그는 사물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동전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서 궁극적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야 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타락했으며 하나님의 참 종교를 왜곡했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그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사람들을 영생에서 실격시킵니다. 그것을 먹으면 지금 영생을 얻고 시대가 끝나면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만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구절에서 그들의 주된 언급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입니다. 물론 주님의 만찬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만 요한은 만찬의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없습니다. 이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중요한 주제는 지금 살펴볼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6장의 가르침은 주님의 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성경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만찬의 가장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며 총괄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이고 다른 의미는 그 하위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의식이나 성례, 하나는 초기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속적인 의식이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은 구원의 적용에 대해 말하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얻으면 구원의 모든 측면을 얻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은 영생을 위해 그를 먹거나 먹이는 언어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연합에 대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따옴표로 묶인 예수를 믿음으로 섭취하여 그가 우리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연합은 56절에서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며, 조상들이 먹고 죽은 빵과 같지 않습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요한 복음에서 상호 거주 또는 내주가 처음 등장합니다.

56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실례합니다. 제 살은 참된 음식입니다, 55.

내 피는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기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합니다. 잘못된 구절을 읽었고,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해 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56은 요한 복음서에서 상호 거주 또는 내주가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 네 번째 복음서에서 여섯 번 나옵니다. 그냥 다시 할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합니다.

물론, abide라는 단어는 생략부호로 이해됩니다. 요한은 종종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거하고 신성한 삶을 공유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어에서 perichoresis라고 부르거나, circumincession 또는 co-inherence라고 부르는데, 둘 다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Perichoresis, perichoresis, perichoresis, 그리고 circumincession, circumincession, 또는 co-inherence, co-inherence, 둘 다 라틴어, 한 번 더 철자법. Perichoresis는 per- i 이며, perimeter와 같이 그리스어로 around를 의미합니다. Choresis, chores- i -s.

원주, 라틴어에서 영어로 온 단어. 원주, circumincession, 주변에 있는 것, 또는 공존, 공존. 놀랍게도,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분을 언급하거나, 다른 곳에서는 그분과 아버지, 그리고 믿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상호 내주라는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656절에서 그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 안에 거한다. 물론 삼위일체의 인격들이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과, 삼위일체의 인격들과 신자들이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오, 세상에, 요점은 삼위일체의 인격들이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과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에게 거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단을 가르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차이점을 강조하는 게 낫다.

와우. 첫째, 삼위일체의 인격은 신성하고, 신비롭게도, 존재론적으로, 영원토록 서로 내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신적 인격의 내주는 영원합니다.

인격은 존재론적으로 존재의 순서에 따라 서로 내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합니다(신명기 6:4, 디모데전서 2:5). 세 인격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이 상호 내주가 영원합니다. 그래서 신성한 내주, 페리코레시스, 할레 또는 공동 고착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분이신지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 안에 셋이시며, 삼위일체적 인격은 하나님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3분의 1을 그들 안에,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전부를 그들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압도적이며, 삶에 대한 의미는 놀랍습니다. 저는 실제로 의미와 적용에 대한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몇 강의 후의 미래 강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일체의 페리코레시스는 물론 독특합니다. 삼위일체의 인격들은 우리와 신성을 공유하지 않으며, 그들의 영원한 상호 내주와는 달리, 그들과의 우리의 교제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삼위일체의 상호 내주와 우리의 세 신성한 인격과의 상호 내주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저는 존이 성령을 빼먹었다는 걸 압니다. 그는 성령을 오순절 이후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하지만 체계적 신학자로서 저는 성령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고, 존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한 그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움직임을 취합니다. 의도적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유사점.

이러한 유사점에는 신성과 은혜로 인해 신성한 사람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요한일서 1:3.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유사점에는 삼위일체와의 교제가 포함됩니다. 주도권과 영광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신성한 선택, 신성한 속죄, 구원의 신성한 적용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사실도 아닐 것입니다. 주도권과 영광은 모두 삼위일체의 것이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교제도 우리의 것입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자도 나로 인해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57. 이것은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했던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가장 놀랍고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므로 그분은 살아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6:57.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로 인해 산다, 그는 성육신으로 존재하신 그의 존재를 말씀하셨고, 그것은 내 이해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역시 그로 인해 산다.

즉, 아버지와 아들 안에 영원히 거주하는 영원한 생명은 그의 속죄와 부활에서 성육신한 아들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영들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 연합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실례합니다, 성육신. 제가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강의의 맥락에서 영원한 아들의 성육신은 타락한 인간이 그와 연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56절은 신학적 공리로, 성육신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없습니다. 오, 단계를 건너뛰니다. 성육신도 없고, 예수의 죄 없는 삶도 없고,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없고, 예수의 부활도 없고,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치기 위해 일하셨듯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와 합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섯 구절, 그것은 단지 첫 번째 구절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0:37과 38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

이번에 선한 목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0:37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한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실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한다면, 비록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미리 읽을 뿐입니다. 물론, 저는 그것들을 설명하고, 맥락에 넣고, 설명하고, 신학을 끌어낼 것입니다. 그것을 주해 신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에요. 35년 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은퇴해서 글을 쓰고, 편집하고, 이 강의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도록 유혹하려 한 후,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며, 따라서 그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소사. 오, 26절.

당신은 내 양들 중에 없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세요.

와. 다시 한번, 그는 자비롭군요. 그는 그 오류에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그를 믿는다. 그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그에게 복종한다. 그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며,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

너는 나를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너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그들을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을 보존하는 능력에 있어서 맥락상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양, 그의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그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28, 29. 그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하나입니다.

30절.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고소당한다.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 그를 돌로 치려고 한다.

예수께서 그들이 어떤 선행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분노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선행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이면서도 자신을 신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절름발이를 고쳤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5장.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었다. 9장. 그래서 그들은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그들은 그의 말씀, 나와 아버지 는 하나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그는 단순한 인간일 뿐인데, 신성한 특권을 행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한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는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유대인의 주장을 사용하여 자신을 변호합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34-36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더 어려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있는 인간 통치자들을 신이라고 부르셨다면, 시편 82:6에서 하신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 시편에서 하나님은 그 신들에 대해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만,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도록 정의를 타락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인간들을 어떤 면에서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의 청중들이 그분이 더 쉬운 일을 하실 때 왜 불평할까요?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주장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는 일조차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신성은 그가 말하기 때문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분에 대해, 거룩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 세상에 보내신 그 분에 대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버지가 그를 따로 세우고,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신성한 주장입니다. 그것은 그의 선재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더 큰 것에서 더 작은 것으로, 더 어려운 것에서 더 쉬운 것으로의 와우-마-호머 유대인 주장 자체는 그의 신성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 세부 사항은 실제로 그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38절, 비록 당신이 나를 믿지 않더라도, 당신이 하는 일, 아버지께서 나 에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하는 일을 믿으십시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다시 시작하자. 다시, 듣는 자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한다(39절). 그의 주장이 엄청난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여기는 분이 자기 안에 계시고, 자기도 그들의 하나님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그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상호 내주, 또는 거하심, 동의어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호 내주, 다시 말해,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또는 할레(occession)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며, 이 세 분은 모달주의(modalism)나 모달리즘(modalism)의 이단에서처럼 단순히 연속적인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초기 교회의 군주주의 .

그것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존재의 연속적인 존재 양식이 아닙니다. 모달리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세 분이 하나가 아닌 동일한 독특한 단일 존재가 복음서에서 아들로 나타났고, 오순절 이후에는 동일한 하나님이 구별되지 않고 동시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복음서에서는 아들,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학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 인격은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세 인격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의 세례에서 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아들, 성령은 신현(神現), 영현(靈現)으로 나타나 ,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내려와 그 위에 머무릅니다. 영원부터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한 분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페리코레스시스(Perichoresis), 즉 할레는 이러한 진리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것은 삼위일체적 세 인격이 각각 신성의 3분의 1이 아니라 각각이 완전한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는 신의 전부입니다. 아들은 신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와 성령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맥락에서 자주 언급하지 않는 성령은 모두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하나님입니다. 신성한 본질의 전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상호 내주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또는 다른 방식으로 말하자면, 세 인격이 서로 상호 내주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십니다. 비록 그 인격들이 구별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해야 하지만,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오직 아들만이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셨고, 아버지도 성령도 아닙니다. 오직 아들만이 죄 없는 삶을 사셨고, 아버지도 성령도 아닙니다.

아들만이 죽고 셋째 날에 부활하여 세상의 구세주가 되었고, 아버지도 성령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죄조차도 분리될 수 없는 용어로 신약에서 언급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14는 왜 항상 몇 구절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저는 크리스천 문신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네,

맞췄어요. 9:14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영으로 자신을 흠 없이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오직 아들 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당신이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아들의 일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인격의 분리 불가능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화해하셨으며, 고린도후서 5장,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사장의 제물과 희생으로 바치셨을 때, 성령을 통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격을 구별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 인물들이 구별될 수 있지만,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리 불가능성을 고백하는 또 다른 방법은 상호 내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거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므로, 예수는 신성모독죄가 없습니다. 그가 말할 때, 아버지가 말하고, 그가 행동할 때, 아버지가 행동합니다.

더욱이 요한복음 10장 38절이 증명하는 이 상호 내주가 14장과 17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제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때인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과 믿는 자들의 상호 내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9,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 요한복음, 요한복음 6장과 10장입니다.